

Techtextil 2011 (Ⅱ)

4. 새로운 일본 제품현황

Techtextil 전시회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수많은 일본계 기업들이 유럽시장 개척을 위해 첫 도전을 했다는 점이다. Komatsu Seiren주식회사는 산업용 직물의 직수출이 몇 퍼센트에 불과하지만, 패션직물뿐만 아니라 산업용 직물도 글로벌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품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고자 Techtextil 전시회에 처음으로 참가하였다.

주요상품으로 스폰지와 비슷하게 생긴 초미소공성 세라믹인 “Green Biz”가 있다. 이 회사는 바이오매스 케익과 지역에서 생산된 규조토를 조합하여 유해물질의 염려가 없으면서 친환경적인 재료로 만드는 것에 성공하였다. 3 μ m의 지름을 갖는 바이오매스 케익 혼합물인 이 특별한 세라믹은 스폰지처럼 구멍이 많고, 초미소공성 구조를 갖고 있으며, 다공성의 규조토와 진흙을 함께 1000°C 이상의 고온에서 구워 만들어진다. “Green Biz”는 투과성, 보수성, 열 절연성, 재활용성, 내화성이 우수하며, 얇고, 가벼우며 생산이 용이하다.

Hiraoka주식회사 역시 많은 경쟁사들이 있는 유럽시장을 개척하고,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Techtextil 전시회에 처음으로 참가하였다. 이 회사는 유럽으로 거의 수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회사들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열차단 필름물질을 20년, 반투명 필름물질을 10년간 보장하는 등 그들의 기술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Hagihara산업 주식회사는 두 번째 참석하였는데, 올레핀 플랫얀(olefin flat yarn)으로 만든 접착테이프 원단을 전시하였다. 레이온 방적사와는 다르게, 플랫얀으로 만든 접착테이프는 가벼우며, 유기용제에 강하다. 이 제품은 다

양한 응용분야에 사용될 수 있어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회사관계자에 따르면, 유럽으로의 수출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장차 중국과 다른 아시아시장 쪽으로도 수출을 발전시키려 한다고 언급하였다.

노볼로이드(novoloid) 섬유인 “Kynol”을 생산하고 출품한 Gun Ei Chemical 산업 주식회사는 독일 kynol Europa 사를 통해 Techtextil 전시회에 참가하였다. 이 회사는 정기적인 출품회사로서, 섬유와 방적사부터 완제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전시하였다. “Kynol”의 연간 생산능력은 600 톤이다. 수출은 생산량의 1/3정도를 차지하는데, 유럽과 미국시장뿐만 아니라, 러시아, 동유럽, 남아메리카,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수출시장을 넓히고 있다. 이 제품은 일본에서 활성탄소섬유(activated carbon fiber)의 원료로 알려져 있지만, 해외에서는 주로 내열재와 부식방지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Kynol을 100%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시장성이 떨어지므로, 회사는 혼방된 제품의 범위를 넓히려고 하고 있다.

5. 신소재 출품현황

Kuraray주식회사는 부스 전면에 “Vectran” 폴리아릴레이트 슈퍼섬유를 전시하고, 부스 뒤편에는 인조가죽 “Clarino Tirrenina”를 전시하였다. 이 제품은 초극세섬유 부직포를 수계 폴리우레탄 에멀전에 함침하여 만든 것이며, 이 소재로 만든 닦음천(polishing cloth)이 소개되었다. 또한 전기방사로 생산한 나노파이버 부직포도 소개하였다.

Toray산업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Toray Textiles Europe 주식회사(TTEL)는 작업자를 위한 새로운 직물을 개발하여 Techtextil 2011에 소개하였다.

“ThermGuard Molten Repel”은 크고 작은 용접볼뿔로부터 안전하도록 고안된 독창적인 고성능·고내구성의 직물로서, 제련, 주조, 용접, 절단 및 연마가 흔한 주조공장이나 중공업 공정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개발되었다.

이 직물은 테프론과 메타아라미드의 복합화기술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열

과 화염에 대해 우수한 저항성을 가져, 용접불뚝이 들러붙지 않고 옷 표면에 서 간단하게 떼어진다. 또한 우수한 방수성과 내구성을 제공한다.

“ThermGuard Molten Repel”은 작업자를 열적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눈에 잘 띄도록 디자인되었다. 국제특허 출원중인 이 직물은 고객 및 사용자들간의 협력으로 개발되었고, 우수한 성능과 착용감을 보장하기 위해서 섬유/화학 제조자들과 독립 실험실들이 성능강화를 목적으로 공동연구를 하였다.

“ThermGuard Molten Repel”은 GO/RT 3279를 포함한 EN 471에 규정된 어떠한 높은 가시성(visibility)의 색상도 제작이 가능하다. 이 직물은 산업규격을 준수하며, 특히 열과 화염에 대한 보호복과 옷과 관련된 ISO 11612:2008과 높은 가시성 작업복에 대한 EN 471 GO/RT 3279 및 8 cal/sqcm 이상 범위의 개방 아크를 갖는 전기적 아크에 대한 열적 위험들에 대한 보호 규격인 EN 61482-1-1:2009를 준수한다. 이 직물은 통기성, 착용감이 우수하고, 산업용 세탁공정에 안정적이며, 우수한 일광, 염색 및 세탁견뢰도를 유지한다.